전법 일기

‘어린이 마음 등불 밝히기’ 원력 내 마음 속 등불도 함께 밝혔다

2023년 1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장으로의 소임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매주 일요일 열리는 범어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를 권유받았다. 어린이 불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느껴 고민이 되었으나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해 수락하였다.

2023년 2월의 어느 날, 2022년도 어린이법회 졸업식에서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아이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있는 나에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몇 살이세요”라며 천진난만하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다. 선생님인 나를 되려 챙겨주려는 아이들의 순수한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다. 이런 아이들의 때 묻지 않은 모습에 도리어 내가 위로를 받고 행복을 느끼곤 한다.

벌써 어린이법회를 맡은 지 2년이 됐다. 불교대학에서 불교는 각자 사람들의 마음 속 등불을 켜주는 것이라 배운 적이 있다. 등불에 대한 비유는 불교 경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은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으로,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의미다. 진정한 등불은 법(法)이고, 법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기에 우리 자신도 세상을 환히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등은 무명(無明)을 밝혀서 지혜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원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등불을 켜고, 이웃을 위한 등불이 되기를 서원한다.

그렇기에 처음 어린이 법회를 맡을 때 목표를 아이들 마음에 등불을 켜주는 것으로 잡았다. 마음에 등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 만나는 어려움 등을 따뜻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또 매 순간 크고 작은 따뜻한 행복으로 삶을 채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어린이법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한명, 한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 같다.

범어사에 처음 방문했을 때, 내가 범어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의 소임을 하게 될 것이라 상상이나 했을까? 생각치도 못한 일이다. 인연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새롭고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이끌기도 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매주 일요일 오전마다 늦잠 자고 쉬고 싶을 텐데 성실히 일어나 참석해주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다주시는 자모님들이 감사하기만 하다. 어린이법회 운영 목표였던 아이들 마음에 등불 켜주기는 결국 내 마음속까지 불빛을 비춰주어 삶에 따스함을 주고 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이런 소중한 인연들과 깨달음을 주신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금 내가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를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지도교사 소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절에 오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절에 오는 것이 즐겁고 절에 오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법회를 만들고 싶다. 이를 통해, 불교의 미래가 어린이법회 회원들을 통해 더욱 빛나길 간절히 바란다.



장남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 부산지부 회장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⑦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2)

힘으로 소유하는 관계는 ‘왜곡된 사랑’

오늘은 ‘힘’과 ‘연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상담에는 ‘보이지 않는 충성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정신과 의사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알콜중독, 폭력, 도박, 외도 등 어린 시절 아이를 힘들게 했던 부모의 역기능적 행동을 그 자녀들이 커서 그대로 재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들은 가장 싫었던 부모의 모습을 반복하는 걸까요?

술을 마실 때마다 아내와 아이를 때리는 아빠가 있습니다. 아이는 커서 절대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커서 아빠처럼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혹독한 비난에 상처받은 딸이 커서는 주변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강박적인 아빠에게 자란 아들이 강박적으로 집안을 정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비논리적인 상황이 ‘무의식’적으로 은밀하게 대물림된다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충성심’입니다.

폭력 가정에서 자란 남자아이는 자기의 소중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동경하고, 여자아이는 ‘연민’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그래 자기가 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약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힘을 경험하려 합니다. 상대에게 굴종을 강요하며 어린 시절 무기력한 자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여자아이는 커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런 남자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가 꼭 어린 시절 매를 맞던, 세상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불쌍한 자기 모습 같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는 ‘힘’과 ‘연민’이 이렇게 역기능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합니다.

알콜중독·폭력 가정 자녀, 같은 행위 ‘대물림’
폭력 가정 남아, ‘힘’ 동경… 약한 가족에 투사
‘보이지 않는 충성심’ 구조 파악해야 연쇄 끊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이야기가 숨어있습니다. 나무가 따듯한 햇살을 받으며 자라듯이 존재는 사랑의 햇살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존재였을 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은 생명의 햇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소중한 존재를 닮아가려 합니다. 내가 그를 닮아가면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이고, 그가 준 상처도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가한 상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용서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을 닮아갈수록 그들이 나를 수용해 줄 것이라는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생명의 근원인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부모님을 미워하는 일은 곧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생각한 사랑이 상대를 ‘힘’으로 소유하는 것이거나 ‘연민’을 갖는 일이라면, 그것이 왜곡된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살면서 반복되는 역기능적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어린 시절의 재연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평생 고민하는 핵심 주제들이 숨어있습니다. 유령처럼 출몰하는 고통과 충동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일이 바로 고통의 반복과 재연을 멈추는 길입니다. 더는 이유도 모른 채 무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랑의 출발이 됩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문화 생태계’라는 기초체력

찬불동요를 보급하는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 대표는 7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2024 붓다 콘서트 ‘찬불가 열창대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종만 대표에 따르면 열창대회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종만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대회를 재개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도 명맥을 이어갔던 열창대회가 재정 악화라는 산을 넘을 수 없었던 것이다.

기독교의 찬송가·복음성가·CCM 같이 저작권료를 지급받으며 창착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불교의 창작 찬불가·찬불동요는 오로지 개인 원력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소한의 재정 확립 구조가 없다보니 불교문화단체들은 만성 재정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최근 ‘불교 AI뮤직’이 대중들에게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유튜버 곰딴(Gomdan)의 AI뮤직 콘텐츠 ‘반야심경’은 공개 한달 만에 32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유튜브에 불교 AI음악을 검색하면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유행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힙(Hip)한 불교’ 열풍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뉴진 스님, 불교 AI뮤직 등의 유행이 사그라지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좋은 벗 풍경소리의 창작 찬불가·찬불동요, 찬불가 열창대회 같은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들이다. 창작활동이 생업인 작가, 크리에이터들이 꾸준하게 불교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장(場)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불교계는 ‘문화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화 생태계’는 일종의 기초체력이자 기반이다. 단단한 기반 없이 지어진 건물은 ‘사상누각’일 수 밖에 없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외면한 무릎 통증이 탈골·인대파열
수술비보다 걱정 앞선 ‘가족 생계’

네팔노동자 수딥 씨, 공장일하다 무릎 다쳐
병원비만 1500만원…치료 중단하고 퇴원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